

미학과

목차

- 1) 총론 - 학과사 서술의 기본 관점
- 2) 서양 미학의 도입과 해방 이후의 침체기 (1926 ~ 1960)
- 3) 문리과대학 시기 (1960 ~ 1974): 맹아기
- 4) 인문대 시기 (1975 ~ 현재): 해외 미학의 흡수 및 국내 미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 4-1. 활착기 (1975 ~ 1985):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활성화
 - 4-2. 성장기 (1985 ~ 2010): 학문체계의 정비를 통한 학과의 독립성 제고와 교양교육의 확대
 - 4-3. 번영기 (2010 ~ 현재): 국내 미학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
- 5) 부록

1) 총론 - 학과사 서술의 기본 관점

역사는 사건들의 단순한 수집이 아니다. 그렇다고 수집된 사건들을 시대, 민족, 지역 등과 같은 외적 기준들에 따라 분류 내지 열거하는 것도 아직 만족스러운 역사가 아니다. 역사의 참된 생명력은 역사적 현상들의 내적, 필연적 연관성을 규명하고 또 이를 통해 역사를 주재하는 정신의 실체를 궁리함으로써 비로소 가시화된다. 이 점을 식물의 삶에 빗대어 설명해보자. 땅에 떨어진 씨앗은 스스로를 지양하여 싹으로 이행하며, 싹은 꽃으로, 꽃은 다시 씨앗으로 이행한다. 여기서 씨앗과 싹과 꽃이라는 이행의 마디들은 생명력의 외적, 잠정적 변양들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생명력 자체는 스스로를 지양하여 타자로 이행하는 마디들 자체의 내적 운동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릇 생명력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외양의 고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마디들의 자기부정적 운동과 그들 사이의 내적, 필연적 관계를 인식하고 또한 이런 종류의 필연성들을 하나의 총체성으로 종합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미학과의 역사를 서술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즉 이 글은 학과의 역사를 주재해온 생명력의 실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또한 생명력의 단서가 자기부정적 운동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자각하기 위한 학과의 치열한 내적 반성 및 이에 따르는 개선의 노력들을 중점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이 글은 온갖 역풍을 뚫고 고유의 독자성과 자유를 쟁취해온 학과의 발자취를 궁극적으로 그릴 것이다. 오늘날 미학과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결과가 설혹 갑작스럽게 나타난 듯 보일지라도, 그 과정은 늘 힘들고 점진적인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리 감언(敢言)하건대, 미학과의 역사는 심득궁행(心得躬行)의 역사이다. 그것은 즉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역경 속에서도 내적 반성을 통해 자기비판과 자기지양의 의식을 마음으로 얻고 (心得) 또한 이를 행동으로 다해온 (躬行) 역사인 것이다.

미학은 18세기 중엽 유럽에서 태어난 학문으로서 철학의 다른 교과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하였지만, 대신 그 속에는 자유의 이념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유럽의 근대정신이 그만큼 더 신선하고 순수하게 녹아 있다. 그러므로 미학은 신생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이미 18세기 말엽에는 칸트에 의해 『판단력비판』(1790)이라는 불후의 고전서가 빛을 보며, 또한 이런 저간(這間)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18세기는 후일 사상사에서 미학의 시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때부터 미학은 철학의 기본 교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으며, 급기야 오늘날에는 예컨대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 푸코 등의 철학 체계를 미학주의로 규정하는 사례가 눈에 설지 않을 정도로 되었다.

이에 비해 이 땅의 미학이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하였다. 미학은 일제 강점기에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창설(1926)과 더불어 이 땅에 도입되었지만, 당시 우리의 사정은 아직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미학의 기본 정신을 곧바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지배와 억압을 일삼는 제국주의의 속성상 일제의 문교정책

이 식민지 학문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할 리 만무하였거니와, 한국인 연구자의 욕성도 극소수에 제한하였으며, 게다가 해방 이후 미학과는 한동안 학문의 성격과 동떨어진 예술대학에 편입되었던 관계로 그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중대한 실기를 면치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미학과는 타 학과들에 비해 출발이 늦었으며, 그 후과(後果)는 예상외로 심대하여 1960년 학과가 문리과대학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한동안 후발자로서의 갖은 고초를 불가피하게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개성과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자유가 현대 정신문화의 양도할 수 없는 두 축을 형성하는 이상, 시대의 전반적 성향이 미학 친화적이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개성과 자유는 물론 그 자체로도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전자는 개별적 속성을, 반면 후자는 보편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대립적인 속성을 갖는 가치인바, 만일 우리가 이러한 대립을 빌미로 양자를 서로 분리된 것으로서 취급한다면, 우리는 둘 중 어떤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개성의 무조건적 존중은 자유와 전혀 다른 방약무인의 자의를 낳기 십상이며 또한 개성을 도외시하는 자유는 자유의 도그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비로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되며, 그런 까닭에 현대의 정신문화는 무엇보다 양자의 변증법적 매개를 요구하는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는 문학과 예술 등이 있으며 또한 철학 교과들 중에서는 미학이 단연 그 백미이다. 왜냐하면 미학은 예컨대 예술철학이나 취미론 등을 통해 개성의 무한한 존중 속에서도 보편적 이념의 준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대정신의 큰 흐름은 미학의 발전에 우호적이다. 미학과의 초기 발전은 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되었지만, 그 뿌리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힘입어 갈수록 튼튼하게 현실 속에 활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미학은 90여년에 걸친 발전사 속에서 어느덧 더 이상 이식된 학문이 아닌, 우리 자신의 학문으로 재탄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급기야 금년(2016)에는 세계미학자대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그 세계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미술은 19세기 중반 자포니즘(Japonism)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서양의 문화 및 예술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며, 또한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은 크게 증진되었다. 요즈음 어투로 표현하자면, 자포니즘은 대강 일류(日流)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류에 비견하는 왕성한 한류(韓流)를 보며 또한 이 물결은 비단 K-Pop이나 TV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차원 높은 문학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학이 세계화를 지향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발견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미학은 장래가 약속된 학문이며 또 그런 만큼 미학과의 이를 선도할 인재의 배출을 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느 모로나 당연지사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이 글은 미학과의 역사를 (1) 도입기 내지 침체기, (2) 학과 체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던 맹아기, (3)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역점을 두었던 활착(活着)기, (4) 독립성의 제고와 교양교육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던 성장기, (5) 국내 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삼는 번영기의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학과는 가령 첫 시기에 하나의 성과를 이루었다면, 둘째 시기에는 그 위에 또 하나를 쌓아 도합 셋의 성과를, 셋째 시기에는 그 위에 다시 또 하나를 얹어 도합 여섯의 성과를 이루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학과의 초기 발전이 외견상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굴의 생명력이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전체 내용을 앞당겨 약술하자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에서는 학과 설립부터 광복 이후의 침체기까지의 (1926 ~ 1960) 상황이 서술될 것이다. 미학과는 일찍이 경성대학 법문학부의 개설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식민지 문교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학문의 국적성이 불분명할뿐더러 그 발전도 미미하였으며, 더욱이 광복 이후 한동안 예술대학에 소속됨으로써 불행히도 학문이 본격적으로 싹틀 시기를 별 다른 성과 없이 흘려보냈다. 한 학과가 단지 행정적 편의나 몇몇 인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그 학문적 성격에 맞지 않는 대학에 편입된다면, 그 폐해는 자못 지대하여 자칫 인문학 전체의 파행을 부를 수도 있었음을 이 장은 부각한다.

둘째 시기에서는 문리과대학 시절의 (1960 ~ 1974) 상황이 서술될 것이다. 1960년 학과가 다시 문리과대학으로 복귀함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학문의 사명에 대한 자각과 학구적 기풍이 일기 시작한다. 그렇긴 하지만 학과의 발전이 첫 걸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교수진과 전문연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학문의 전체 외연을 고루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또한 학과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긴 암중모색의 시간을 인내해야 했다. 학문 내적, 외적인 면에서 모두 미흡한 학과의 실정으로 인해 뜨겁게 솟구치던 학생들의 의욕이 다반사로 쉬이 냉각되었으며, 대학원도 그 연장선상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더구나 1969년에는 미학과와 종교학과의 철학과와 통폐합되는 또 다른 시련이 엄습했으나, 다행히도 이때를 전후하여 전임교수가 두 분 증원되었으며 또한 학과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장차 다가올 도약의 국면을 준비한다.

셋째 시기는 대략 관악 캠퍼스 이전 후의 첫 10년간(1795 ~ 1985)으로서, 여기서는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진력하는 학과의 노력이 그려질 것이다. 이때부터 대학원이 활성화되고, 외국 유학을 떠나는 연구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또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면면히 지속되고 있다. 교수진과 전문연구인력은 양적인 면에서 여전히 태부족이었지만, 이것은 문리과대학 시기와 달리 더 이상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아니었다. 80년대 초반에는 학부의 학생 수가 적은 관계로 잠정적으로 곤란을 겪기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우수 학생들이 입학함으로써 이 문제는 곧 해소되었다.

넷째 시기는 (1985 ~ 2010) 교과과정 정비를 통해 학과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또한 교양교육의 확대를 위해 선구적으로 노력하는 학과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이 시기에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연구인력들이 속속 등장하고 또 교수진도 부족하나마 충원됨으로써 학과는 타 학과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되었으며, 또한 교양교육 및 인성교육에 선구적으로 힘을 기울여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학과는 문화와 예술의 이 방면에서 현재 중임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으며, 아울러 학문 연구의 분야도 그만큼 더 다양화하였다. 한편으로는 철학적 미학이론의 연구자들이 꾸준히 양성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가들도 못지않게 배출되었다.

다섯째 시기는 (2010 ~ 현재) 지금까지 다져온 단단한 기초위에서 드디어 세계로 눈을 돌리는 학과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과는 종래의 성과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화에도 진력하여 금년에는 세계미학자대회와 국내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현재로서는 주로 해외에서 수학한 연구자들이 학문 발전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학위를 마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도 적잖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를 통해 세계화된 한국 미학이 운위될 날도 미구에 도래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시기 구분은 첫째 학문과 학과의 외형적 발전에 관한 실증적 자료들의 수집과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둘째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미학의 학적 필연성과 현대적 의의를 내적으로 반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나아가 분석과 내적 반성을 아우르는 이러한 서술 방법을 통해 본이 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가올 미학의 역할도 간단히 전망할 것이다.

2) 서양 미학의 도입과 해방 이후의 침체기 (1926 ~ 1960)

미학과는 1926년 경성대학에 법문학부가 설치되면서 문학부 철학과의 한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었다.¹⁾ 그런 만큼 이 땅의 미학과는 근대적 체계의 대학과 그 출발을 함께 한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미학이 일반에게 생소한 학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왜곡된 식민지 문교정책이 학문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할 리 만무하였으며, 또한 한국인 연구자의 육성도 극소수에 그쳤으니, 해방 즈음 이 땅의 미학계는 고유섭(高裕燮, 1905-1944, 1930년 졸업)과 박의현(朴義鉉, 1909-1975, 1936년 졸업)을 논외로 하면²⁾ 전문적

1) 경성대학은 1924년 일제에 의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2년 과정의 예과가 설치되었고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구성된 3년 과정의 학부가 출범하였다. 법문학부는 법학부와 문학부로 나뉘는데, 문학부 산하에는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3개 학과가 있었으며, 다시 철학과는 철학전공, 윤리학전공, 심리학전공, 종교학전공, 미학전공, 교육학전공, 중국철학전공의 7개 전공과정을 두었다.

2) 우현(又玄) 고유섭은 1930년 4월 『예술적 활동의 본질과 의의』라는 논문으로 철학과 미학전공을 졸업하고 「美學及美術史 研究室」의 조교를 역임하였다. 그는 1933년 3월 개성박물관 관장에 취임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미술사학에 전념한다. 동암(東岩) 박의현은 1936년 철학과 미학전공을 졸업한 후 「美學及美術史 研究室」 조교를 2차에 걸쳐 역임하고 그 사이에 개성 「소피아 여학교」의 수신 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는 1946년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자 미학과의 전공교수직에 취임하여 미학과의 터전을 닦는 일에 헌신했다.

관심을 둔 인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였다.³⁾ 더구나 개성박물관장으로서 우리나라 미술사 연구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고유섭은 해방을 일 년 앞두고 작고하였으니, 해방 직후의 미학 연구는 「美學及美術史研究室」 조교를 역임한 박의현 교수가 홀로 감당해야 할 과중한 짐이었다. 해방 직후의 혼란상과 부족한 연구 인력을 감안할 때, 이 시기 미학과의 성과가 미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이것은 비단 미학과에만 국한된 사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의 출범은 보다 균형 잡힌 미학의 발전을 위해 호기가 될 수 있었겠으나, 불행히도 이 당시 학과의 발전을 치명적으로 가로막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미학과는 해방 직후 경성대학교의 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나 1946년 미군정 하에서 반포된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개교하였을 때에도 문리과대학 소속이었지만, 1948년 4월 신학기가 개강되면서 ‘잠정적’이라는 단서와 함께 예술대학으로 소속을 옮겼다. 당시 박의현 교수는 문리과대학 예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미학과는 전임교원 없는 학과라는 어불성설의 망측한 상태를 겪게 된 것이다.⁴⁾ 이러한 괴이한 단견이 대학의 정책으로 채택된 배후에는 당시 예술대학 소속이던 장발 교수의 부족한 미학 이해도 한몫했다. 아마도 그는 미학을 미술이론과 동일시한 나머지 실기 위주의 예술대학이 미학과를 품어야 한다고 오판한 듯하며 또한 그런 유의 단견들이 세를 이루어 어처구니없는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의 성격을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이다. 원래 미학은 18세기 중반 유럽에서 근대적 인본주의에 기초한 철학의 한 분과로서 탄생했으며, 방법론의 면에서도 철학 일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전혀 예술대학에 속할 성질의 학문이 아니다. 이 점은 대표적인 미학자들, 예를 들어 흄, 바움가르텐,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등이 예외 없이 모두 철학자란 사실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난다. 1953년 4월 예술대학이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분리될 당시에도 문서상으로는 미학과를 문리과대학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 약속은 적시에 이행되지 않았으며 그 후로도 미학과는 학문적 성격에 따른 분류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미술대학에 한동안 속해 있었다.⁵⁾

미학과를 예술대학으로 부당하게 이전시킨 사건은 단순히 행정상의 오류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학문의 정체성은 크게 훼손당했으며, 이는 일반이 미학의 인문학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적잖은 식자들이 종종 미학을 미술관련 이론에 그치는 학문으로 곡해하였고, 나아가 전문 연구자들조차 미술관련 분야의 연구에 치중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는 다시 균형 잡힌 미학 연구를 저해하는 심각한 분야별 편중현상을 낳았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미학 전공자이자 국내에서 미술사학을 최초로 개척한 고유섭의 영향이 얼마간 작용했을 것이며 또한 미학과 미술사학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경성대학의 관행도 혼란을 부채질했을 것이다. 미학은 예술과 관련 있는 학문임에 틀림없지만, 이는 미학이 예술에 봉사하는 학문이어서가 아니라 예술이 미적 사유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학의 경계는 기실 예술의 경계를 훌쩍 넘어선다. 미학은 근대 인본주의에 녹아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학문적 결정체이며 또한 예술은 그러한 정신이 표출된 대표적 사례인 까닭에 미학과 연관을 맺게 된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면 미학이 정작 해명하려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그 모태가 되는 정신 그 자체인바, 미술이론이나 미술사 등을 통한 미학의 이해는 충분치 않으며 오히려 그 성격은 시대정신 일반의 철학적 파악이라는 한층 광범위한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학계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일반에게는 그러한 혼란이 아직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만큼 미학과는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예술론이나 예술사학

3) 열암(溇岩) 박종홍이 일찍이 미학에 뜻을 두었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그는 “어느 해인가 테오도르 릴스의 미학책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경주 석굴암을 찾아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한여름을 지낸 일” 있었다는 회상을 글로 남기지만, 1929년 경성대학 철학과에 입학한 후 미학전공을 포기하고 철학전공으로 돌아선다.

4) 미술대학 시절 박갑성 교수가 미학과에 부임하였으나, 화가인 그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문리과대학복귀 후 한 학기 만에 미술대학으로 돌아갔다.

5) 백기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30년사』에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종전에는 이 나라에 없었던 예술교육 기관으로서 예술대학이 설립되자, 여기에 미학과를 소속케 했던 까닭은, 미학교육이 순수이론의 성찰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기교육이나 예술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게 함으로써 보다 큰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였다. 그러나 그 후 제반 상황으로 보아 폭 넓게 순수이론 교과목을 수강케 하는 것이 교육상 더욱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1953년 4월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 미학과를 문리과대학에 이속 복귀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속은 지지부진 미루어지다가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 뒤 미학과 학생들의 대대적 반발에 못 이겨 비로소 실행에 옮겨졌다.

의 성과를 소중히 수용함은 물론이거니와 학문 자체의 철학적 깊이를 심화하는 연구 및 그 전파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미학과는 1960년 뒤늦게 문리과대학으로 복귀한다. 이때를 전후한 시기에는 박의현 교수가 미학의 후진양성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학과는 전반적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되돌아본다면 당시는 학과와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길목에서 중대한 실기를 당한 뼈아픈 시간이었다.

3) 문리과대학 시기 (1960 ~ 1974): 학과 체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

문리과대학으로의 복귀는 사필귀정이지만, 학과의 낙후성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았다. 학문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계기는 겨우 마련되었지만, 그 실현은 박의현 교수 한 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과제였다. 하지만 점차 교육과 연구의 폭이 확장되고⁶⁾, 일군의 젊은 학도들이 학문적 열정과 관심을 갖고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학문적 소명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침체를 면치 못하던 대학원도 조금씩 활성화되어 갔다. 이러한 기풍은 1961년 중문과 대우교수이던 학보 김정록(學步 金正錄) 교수를 동양미학 분야를 위해 영입하면서 더욱 진작되었다. 1962년에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조가경(曹街京) 교수가 전임교수진에 가세하여 독일 현대미학을 강의함에 따라 학과의 교수진은 더욱 짜임새를 갖추었다. 비로소 독일 관념론 미학(박의현 교수), 현상학과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 현대미학(조가경 교수), 그리고 동양미학(김정록 교수)으로 이루어진 전공교과의 초기 골격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가경 교수는 대륙의 현대 미학 및 철학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학문 사조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1965년 철학과로 이적하면서 미학과 강의와는 멀어졌다. 따라서 60년대 중반 미학과의 커리큘럼은 독일 중심의 근대미학과 동양미학을 골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전공교과들을 짜임새 있게 망라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박의현 교수가 담당한 독일 관념론 미학은 동경대학 미학과 교수 오니시 요시노리의 연구를 이어받은 것이어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이론을 크게 넘어선 것이 아니었고, 김정록 교수의 동양미학도 이제 겨우 새로운 학문적 틀을 모색하는 단계였다. 게다가 미학의 또 다른 주요 분야인 영미미학과 미학사 분야는 여전히 미답의 상태에 가까웠다.

이러한 낙후된 상황은 1968년 고대 및 중세 미학을 위해 백기수(白琪洙) 교수가, 그리고 1970년 영미 미학을 위해 오병남(吳炳南) 교수가 전임 교수진에 가세함으로써 다소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학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공교과의 편제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안 많은 타 대학의 교수들도 출강하여 학문적 내실의 진작을 위해 헌신하였다.⁷⁾ 이러한 부흥의 기운을 타고 1968년 9월 마침내 한국미학회가 창립되었으며, 그 기관지인 『미학』은 그 후 한 동안 매년 1회씩 발간되다가 날이 갈수록 연 2회(1997), 연 3회(2003), 연 4회 (2004) 발간으로 발전하여 현재 이 땅의 미학 발전을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리과대학으로의 복귀가 학과 구성원들의 각성을 촉진하였음은 사실이지만, 60년대 전반에 걸쳐 학과는 여전히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미술대학의 구습을 쇄신하고 새로운 학풍을 일으키기 위해 상당한 고투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1969년 초에는 미학과와 종교학과를 철학과와 통합하려는 책

6) 오병남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 동암 박의현 교수」라는 글에서 1960년대 초반의 발전 과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쓴다. “미학교육은 1960년대 초까지 칸트나 헤겔을 중심으로 한 독일 고전미학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좌만이 개설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기획되었던 중요한 일은 미학 및 미학교육에 대한 일반의 무관심과 오해를 불식하고, 그 본래의 의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미학교육도 그러한 의도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이를테면, 미학의 특수분야라 할 수 있는 예술각론(곧 문예론, 미술론, 음악론, 연극론, 영화론 심지어 사진론 등)의 강좌가 단계적으로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 서양 미술사 강좌도 개설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멀리 내대본 기획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 인문학의 한 교양과목으로 미학이나 예술론 및 각론 등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획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7) 이 시기에 미학과에 출강한 교수로는 독일 관념론 미학 분야의 임범재 교수(홍익대 미대 교수 역임), 독일 예술학 및 고대 미학 분야의 조요한 교수(숭실대 총장 역임, 학술원 회원), 서양 미술 및 영미미학 분야의 김윤수 교수(이대 미대 교수 역임), 동양미술 분야의 장문호 교수(상명여대 교수 역임), 동양미학 분야의 권덕주 교수(숙명여대 교수 역임) 등이 있다.

동이 가시화되더니 급기야 1969년 12월 27일 「서울대학교 학칙」에 따라 미학과는 독립 학과로서의 지위를 잃고 철학과의 3전공(철학전공, 종교학전공, 미학전공)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3과는 이미 학문적으로 분화된 길을 걷고 있었던 까닭에 이러한 조치가 해당 학과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된 데는 미학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부족했던 탓도 있고, 연전에 이루어진 사학 3과의 분리 및 이에 따른 정원확대의 요구가 미학과의 정원축소로 이어진 탓도 있겠으나, 더욱 결정적 원인은 그간 미학과의 성과가 학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점에 있었다. 학과는 이후 이 점을 뺏속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대신 학과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한 그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3과 통폐합 조치는 힘들게 제자리를 찾아가던 미학과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흔들었다. 학과가 일개 전공으로 격하되고 아울러 학부의 모집정원이 60년대의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 (69·70학번) 당장 학문의 명맥을 잇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⁸⁾ 정년에 따른 교수진의 결원조차 적시에 충원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정록(73년), 박익현(74년) 교수의 정년퇴임 후 그 자리가 꺾적으로 남아서 한동안 백기수, 오병남 교수 두 분이 학과를 책임져야만 했다. 모집정원은 그나마 다행히 1971년부터 10명으로 다시 증원되었다. 서울대학교가 1975년 2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즈음 학과의 사정은 이렇듯 웅색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간 힘들게 쌓아온 학문적 내실은 알찬 결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젊은 학도들이 대거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70년대 말엽부터는 적지 않은 인원이 두 분 교수의 권유와 지도에 따라 해외 유학길에 올랐고 (아래의 표 참조) 또한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젊은 학도들의 연구가 꾸준히 진작되었다.⁹⁾ 미학의 본격적 발전을 위한 씨앗은 이 무렵부터 파종되었다. 1960년부터 1975년 관악 캠퍼스 이전까지를 아우르는 이 시기에 학과는 문리과대학으로의 복귀라는 염원을 이룬 반면 독립 학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니, 그때는 빛과 어둠의 교차 속에서 새날이 밝아오는 여명기였다.

<80년대 이후 외국 대학에서 철학 내지 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졸업생 명단>

국명	명단	인원수
미국	오종환, 임일환, 주동울, 김진엽, 김혜련, 이해완, 이정환, 민현준, 최경석, 최석, 서원주, 최진희, 신현주, 김세화, 조선우, 김한승, 김희정, 박상혁, 신현주, 김상민	20
독일	김문환, 박정기, 민형원, 김광명, 이창환, 염재철, 이춘길, 권대중, 박배형, 권혁성, 인원근, 임성훈, 김울, 김남시, 박정훈	15
프랑스	이윤영, 김승환, 박기순, 조희원, 최빛나, 이나라	6
영국	김한결, 정종훈	2
중국	이상우	1
그리스	서승원	1
일본	민주식, 선승혜	2
	총계	47

1950년대와 60년대의 미학과는 학문적 정체성의 면에서 큰 혼란을 겪었을 뿐더러 그 극복은 아직 요원하였으므로, 당시의 학생들은 학문 연구에 매진하기보다 폭 넓은 문화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리대 연극회 활동의 적극적 참여는 학과의 전통이 되다시피 하였으며, 아직도 살아있는

8) 당시 3개 학과(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분리된 사학과의 입학생의 증원을 요구하였는데, 대학 당국은 미학과와 종교학과의 정원을 줄임으로써 이에 부응하였다. 미학과의 입장에서 볼 때, 학과의 최소 정원마저도 무시한 이 조치는 학문의 전체적 발전을 조망하지 못하는 학과 이기주의의 전횡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의 통폐합도 어떤 측면에서는 정원축소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진행을 일종의 비학문적, 무법적 약육강식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김문환 교수는 「한국 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미학』 제56집, 2008)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그러나 미학과의 행보는 여전히 순탄하지 못하였다. 입학정원이 문리대 이전 첫 해 20명에서 이듬해 10명으로 줄더니, 드디어는 5명으로까지 줄어드는가 하면, 1969년에는 급기야 철학, 미학, 종교학 3과가 철학과로 통폐합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 3월부터 인문대학 소속이 되면서도 사정은 호전되지 못하다가, 198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복과가 이루어졌다.”

9) 80년대 이후 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유경, 윤자정, 백운수, 박일호, 신혜경, 조주연, 양효실, 장민한, 조송식, 서지원, 주성욱 (법명: 명법), 강미정, 김정현, 조진근, 이수완, 전예완, 정우진, 정성철, 정수경, 이종희, 양민정, 강선아, 신운화, 서진희, 이관형.

이러한 풍조는 후일 여러 문화 분야의 주요 인재들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60년대의 4·19혁명과 한일회담반대 학생운동, 70년대의 유신정권반대 학생운동에 갖은 고초를 불사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선배들의 기개도 학과00의 전통이 되어 80년대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후배들에게 큰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아래의 신문기사(1999)는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미학과 출신 인사들의 면면을 잘 소개하고 있다.

[지식인 지도가 바뀐다] 8. 서울대 미학과 출신들

시인이자 사상가 김지하, 문화 기획자 강준혁,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 시인 황지우, 영화기획자 신철, 신예 문화 독설가 진중권... 모두 한국 문화계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한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뭘까. 바로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데 모여 그룹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미학을 실현하려 노력했던 인물들. 다시 말해 미학 최고의 주제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풀어낸 '미학실천파'라 할 수 있다. 미학실천파의 역사는 미학과가 미술대에 소속됐던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극계는 고 이낙훈, 고 김동훈씨 등이 원조격. 이후 60년 문리대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들 실천그룹이 속속 등장한다. 미학실천파의 분위기는 김지하(金芝河, 본명 英一, 58. 명지대 문학창작과)라는 걸출한 인물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오적' 등의 시를 통해 유신정권과 정면대결을 펼쳤고 최근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우주적 삶을 회복하려는 '올려사상'을 설파하는 그이지만 미학과 시절 그의 주요 활동공간은 연극 무대였다. 그는 당시 동기생이던 정일성(鄭一成, 59. 극단 미학 대표) 씨와 함께 문리대 연극회를 이끌며 문화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연출이나 기획에도 재능을 발휘했지만 연극회 후배에 대한 카리스마적 장악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지하 형은 66년 졸업 후에도 학교 정문 앞에 와선 후배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죠. 수업을 받다가도 빠져나와 형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연극 연출가 이상우(李相宇, 48) 씨의 추억이다.

당시 연극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미학과였을 정도로 이들과 연극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다. 정한룡(鄭漢龍, 53. 연우무대 대표) 씨는 물리학과로 입학했지만 연극 활동을 위해 미학과로 적을 옮겼을 정도다. "연극회에 미학과 학생이 많고, 또 같은 말을 해도 미학과생이 하면 '말발' 이 먹히더라구요." 鄭씨의 말이다. 정일성씨는 문리대 연극회를 주도한 뒤 60년대 동양방송(TBC) PD를 지냈다. 88년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극단 '미학' 을 설립해 왕성한 연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한룡·이상우씨는 문리대 연극회 출신의 김광림씨 등과 함께 78년 연우무대를 만들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칠수와 만수' 같은 실험성과 풍자성이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내며 80, 90년대 한국 연극사에 한 획을 그었다.

각종 공연이나 행사의 기획자도 여럿 배출됐다. 서울대 총연극회장을 지낸 구자흥(具滋興, 54. SCA 문화디자인 대표) 씨는 민중극장 등을 거치며 공연 기획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연극제' '춘천 인형극제' 등을 기획,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준혁(姜駿赫, 52. 스튜디오 메타 대표) 씨는 30세의 나이로 공간사랑의 극장장을 지내며 각종 공연을 기획했다. 그는 지난해 아비뇽 연극 페스티벌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명성도 얻었다. 이렇듯 미학실천파는 주어진 틀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열려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탈춤, 마당극 등을 대중적인 문화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채희완(蔡熙完, 51. 부산대. 무용학) 교수 역시 대표적 인물. 그는 미학과 입학 직후부터 가면극 연구회에서 교습 받은 탈춤을 전국 대학에 보급했다. 그가 주도한 탈춤반은 대학의 민족·민중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신철(申哲, 41. 신씨네 대표) 씨도 한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인물. 대학 2학년 때 충무로에 진출한 그는 88년 최초의 영화기획사 '신씨네' 를 창립했다. 그가 제작한 '구미호' '은행나무 침대' 등은 한국 영화계에 과학적 마케팅과 잘 짜인 기획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작품들. 미술사 연구에 미학적 관점을 접목시킨 인물들도 빼놓을 수 없다.

김윤수(金潤洙. 63. 영남대. 회화) 교수를 비롯하여 권영필(權寧弼. 58.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김홍남(金洪男. 51. 이화여대 박물관장. 미술사) 교수 등은 우리미술의 역사를 폭넓은 시각으로 조망해왔다. 이 중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미술사를 대중화한 유홍준(俞弘濬. 50. 영남대 박물관장, 미술사) 교수는 가장 널리 알려졌다. 그는 전통과 현실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미술사의 미학적 조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미학과 출신의 특징은 예술적 작업을 하더라도 미학의 주제 중 하나인 '예술과 사회의 관계' 라는 문제를 고민해왔다는 점이다. 시인이자 조각·사진 등 전방위 예술을 지향하는 황지우(黃芝雨. 47.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 씨의 경우가 대표적. 그는 80년대 파격적인 시를 통해 권력에 맞섬과 동시에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인정받았다. 김문환(金文煥. 55. 서울대 미학) 교수는 순수학문적인 연구와 현실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진행시킨 경우. 그는 사회미학적인 관점에 입각, 문화정책이나 문화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며 현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을 맡고 있다. 또 그는 30년간 연극평론가로 활동해왔다.

이 같은 전통은 80년대 세대인 진중권(陳重權. 36. 베를린자유대학 유학중) 씨에게로 이어진다. 80년대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에서 '정치적 문화운동'을 전개했던 그는 최근 보수주의자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를 출간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미학과 출신들이 이처럼 한국 문화에 술계에서 빛을 발하게 된 이유는 뭘까. 우선 개개인의 '예술 지향성'을 들 수 있다. "고3 때까지 클라리넷을 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김지하 선배가 '진정한 예술을 하려면 미학과에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무언가 '미학' 이라는 데서 예술적인 '냄새' 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 이 학과를 지망하게 됐죠." 강준혁씨의 이야기다.

그 뿐 아니라 고교 시절에 미술(이상우. 신철), 음악(김문환), 문학(구자흥, 황지우) 등을 추구했던 이들도 비슷한 경우. 미학이란 학문 그 자체도 영향을 미쳤다. '감성에 대한 인식론' 인 미학의 핵심 주제들이 예술을 추구하는 이들의 뇌리에 박혔을 것은 당연한 일. 여기에 선후배, 동료 간의 끈끈한 애정과 상호교류로 형성된 공동체적 힘이 덧붙여지면서 지금의 미학실천파가 형성된 것이다. "미학이란 분야는 아주 근본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칙을 강조하게 된다. 미학과 출신들이 미개척 분야를 과감하게 돌파해나갔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 고 유홍준 교수는 말한다.

그리고 문리과대학 시절의 서술을 마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문리과대학 시절의 은사이신 故 박의현 교수와 故 김정록 교수에 대한 추모의 글을 소개함으로써 그 분들의 인간적 면모를 기리고자 한다. 故 백기수 교수는 1985년에 집필한 한 글에서 스승 박의현 교수의 빈자리를 다음과 같이 애도하고 있다.

“금년으로 동암 박의현 교수가 타계하신지 10주기를 맞이한다. 한국미학계 초대 회장으로 학회 창립에 크나큰 기여를 하셨고, 후학 육성에 평생을 헌신하신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추상문을 쓴다. (...) 35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에도, 나의 잊을 수 없는 스승 동암 박의현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면, 미학강의 시간에 특이한 어조로 또박 또박 불러주시는 내용을 노트에 일일이 받아쓰게 하시며, 몇 번이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던 진지한 열강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듯하다. 당시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조국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인지라, 서울대학교 도서관이나 미학과의 배치 도서로는, 전쟁 전의 독일미학 서적이거나, 일본미학 서적들이 꽤 많았다. 그래서 학문풍토를 말하자면, 립스나 폴켈트의 감정이입미학을 비롯해서 데썬아나 우티츠의 일반예술학, 그리고 코헨이나 릿케르트의 신칸트학파미학, 딜타이나 짐멜의 생철학적 미학, 가이거나 오데브레히트의 현상학적 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자동복사기라고 하는 편리한 기계는 물론 없었으니, 강의내용과 참고자료까지도 일일이 또박또박 필기를 해야만 했고, 원전의 독해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던 미학원서 강독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손수 원지에 철필로 정성껏 쓰셔서 등사기(?)로 밀어, 이것을 배부 받게 되면 신주 모시듯 소중하게 노트에 붙여놓았으니 격세지감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히 편리하고 간단한 자동복사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며 어리석은 것 같은 필사가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일일이 손수 필기해 나가는 동안에, 내용이 머리에 또박또박 들어가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 사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 동안에 기껏 필기해야 노트로 5-6장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압축된 것이어서, 원서로는 5-60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늘 외국어 학

습에 교육의 역점을 두셨으며,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에게 필요한 무기에 비유해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 잘 알려져 있듯이, 미학은 본시 서구세계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차지하는 개별과학으로서 학명이 주어지고 체계화되어 발전을 이룩한 학문이며,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지 않다. 이 새로운 학문이 우리나라에 이식된 것은 반세기전 일정치하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미학과가 설치되었던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미학이란 학문의 역사는 곧 대학의 역사와 함께한다고도 하겠다. (...) 한국에 있어서의 미학의 역사는, 이러한 배태기로부터 비롯되어, 8.15와 6.25와 4.19 등에 걸친 격동의 고난기를 겪고, 1960년대 후반부터 정착 발전기에 들어간다고 하겠는데,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 새로웠던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나 에티엔느 수리오 등의 미학을 비롯해서 영.미의 미학이론 등이 속속 소개되고, 외국과의 학술 교류도 적극적으로 시작되었다. (...) 동암 박의현 선생께서는 1936년에 철학과를 나오신 후 역시 미학과의 조수를 거쳐, 8.15 광복 후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를 역임하시면, 1974년 정년퇴임후로도 대학원 미학 강의를 계속 담당하셨고, 1975년 타계하실 때까지 줄곧 학계에 몸담아 미학교육과 연구로 평생을 보내셨다. 이러한 공로로 녹조소성훈장을 받으셨고, 한국미학회 초대회장과 고문을 역임하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학도를 육성하시고 학술활동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그 공로는 실로 지대하다. 동암 선생의 성품은 한마디로 해서 외유내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요즈음에는 이른 바 직선적 성격을 미덕으로 여겨,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경박하게 마구 지껄이며 투쟁적인 사람을 가리켜 솔직하고 씩씩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되는데, 한 세대전만 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아니 될 말을 가릴 줄 알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사제시간에도 말없이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선생께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고, 늘 단정한 용모로 인자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며, 가령 제자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면, 넉넉히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네”라고 하시며, 자연스럽게 타이르셨다. 선생께서는 대단히 애주가이셔서, 이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다. 동승동 문리과대학 시절에, 같은 과의 학보 김정록 교수, 중문과의 차상원 교수와는 막역한 사이로, 이 세분은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다정한 주봉이셔서, 종로 5가 모과에서 늘 夕陽蝻을 즐기셨다. 예나 이제나 학자로서는 머리도 식힐 겸 담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신위생을 위해서 좋고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가끔 이 젊은이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동석이 허락되면, 반주의 속도를 달리기 경기에 비유해서, 당신께서는 장거리 선수라 하시며, 한바탕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동암 선생께서는 학덕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체육 면에 있어서도 출중하시어, 고보시절에는 당시 한반도에서 축구의 본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던 함흥에서 수학하시면서 함흥고보의 축구선수이셨으며 대학시절에도 대표선수로 각지에 원정을 하시는 등, 축구의 기량을 발휘하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한 음악애호가이셔서, 당시에는 구하기가 어려웠던 고가의 축음기 음반을 꽤나 많이 수집하셔서, 틈만 있으면 제자들과 함께 애청하시며, 수준 높은 해설을 들려주시기도 했다. 선생님의 忙中有閑에 또한 빼어놓을 수 없는 취미생활에는 시조도 있었다. 미학자로서의 동암 선생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淸福” 바로 그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창생활을 보내시고, 최마리아 여사와 단란한 가정생활을 이루시면서 자녀들을 대성하게 하셨으며, 학교교육과 학문연구에 전념하시다가 1975년 11월 16일 타계하실 때까지 이 나라에 유위 한 후학들을 길러내셨다. ‘去者日益疎’란 말이 있지만, 대학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학문을 하는 우리에게, 역시 대학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학문을 하셨던 그분의 모습, 은사의 추억이 날이 갈수록 소홀해지지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친근해지는 것 같으니, 존경하는 스승을 이미 떠나셨다 해도 ‘去者日益親’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에는 돌아가신 스승을 날이 갈수록 가까이 뵈고픈 제자의 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66학번 강준혁은 1999년에 쓴 글에서 당시의 스승들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미학과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스승들이 있다. 46년 서울대 개교와 동시에 부임했던 박의현(朴義鉉, 75년 작고) 교수와 김정록(金正祿, 82년 작고) 교수다.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한朴교수는 재학 당시 미학을 강의하던 우에노 교수의 조교로 일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독일의 순수관념철학으로서의 미학을 강의했던朴교수는 상당히 절도 있는 성품을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과도 격의 없이 지냈다고 한다. 그는 깨알 같은 글씨를 뽀뽀이 적어놓은 강의노트를 들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朴교수가 정통적인 미학 강의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동양미학을 가르쳤던 金교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인자한 성품의 그에게는 학생들과 얽힌 사연이 적지 않다. 김지하씨는 ‘스물한 살 때 세상일이 괴로워 원주에 내려가 金교수에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편지를 썼더니 도덕경을 읽어보라는 내용의 장문의 답장이 왔다. 그 책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말한다. 허리 디스크로 몸져 누웠던 김윤수 교수에게는 손수 약을 지어 보냈다는 일화도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직접 붓을 쥐어주며 사군자와 필체를 가르쳤고 연극 등 과외 활동하는 학생들을 잘 이해해줬다고 한다. 金교수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과 인간적인 태도는 제자들에게 큰 감화를 줬다.” 손수 약을 지어주신 스승의 자애는 오늘날도 늘 학과의 귀감으로 살아있다.

4) 인문대 시기 (1975 ~ 현재): 해외 미학의 흡수 및 국내 미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4-1. 활착기 (1975 ~ 1985): 제도적 완비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활성화

미학과는 1975년 3월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철학전공·종교학전공·미학전공의 세 전공으로 구성된 철학과의 일원으로서 인문대학에 소속하다가 1985년 독립 학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된다. 앞서도 말했듯이, 학과가 철학과 산하의 일개 전공으로 격하됨으로써 겪은 불이익은 꺾적 교수진의 총원 연기를 필두로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았으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정황은 자칫 미학 자체의 쇠퇴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독립 학과로서의 지위 회복이었는데, 그 성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인력의 양성, 철학과와 차별되는 교과과정의 확립, 학내 타 구성원들의 설득 등등의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 같이 시간을 요하는 난제들이지만, 학과는 70년대 후반부터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참을성 있게 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1975년 3월에는 문리과대학이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되며, 전공과정으로 격하된 미학과는 인문대학의 일원으로서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다. 1974년부터 서울대학의 신입생 모집방식은 학과별 모집에서 계열별 모집으로 바뀌는데, 이로 인해 미학과는 다년간 또 하나의 역경을 맞는다. 즉 신입생을 계열별로 선발한 후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도록 만든 당시의 제도로 인해 몇몇 무세(無勢)한 학과들은 신입생 부족이라는 뜻밖의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전임교수는 두 분뿐이고, 독립 학과도 아니며, 미학이 일반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의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사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78, 79, 80학번의 신입생은 각각 4명, 3명, 2명에 불과하여 당장 학부의 공동(空洞)화가 걱정거리로 대두되었다. 전공 학생의 명맥이 끊길 지도 모르는 이 위기는 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1980년 7월 30일자 정부의 교육조치로 인해 해소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인문대학의 정원도 늘어나서 81학번부터는 학과의 정원이 20명이 되었으며, 82학번부터는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꾸준히 학과에 진입하였다.

전공과정으로 격하된 미학과는 본래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미학은 그 계보에 따를 때 논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등의 철학 교과와 긴밀한 친족관계를 맺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학가가 따로 없는 대학에서는 대개 철학과에서 미학 강의가 제공된다. 그러나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 동경대학 등의 경우와 같이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미학과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례도 허다하며, 이 경우 미학과는 철학이론들 이외에도 예술관련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수용한다. 『미학강의』라는 대작을 남긴 헤겔은 미학이란 철학적, 사변적 이론들뿐만 아니라 예술 현상들도 함께 고찰하는 학문임을 주장한다. 학과도 역시 이런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기본 교과 속에 철학 계통의 과목들 이외에도 인문학 연구에 불가결한 미술이론 및 음악이론 분야를 수용함으로써 철학과와 구분되는 전공교과편제의 독자성을 제고하였다. 이때부터 학과의 전공편제는 미학이론, 미술이론, 음악이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확장, 정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연래의 노력이 괄목의 결실을 거두어 학부생이 몇 안 되던 시절에도 졸업생들은 거지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타 학과 내지 타 대학을 졸업한 입학생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래 표 참조.) 그 결과 우선 1981년 11월 대학원 석사과정이 미학전공에서 미학과로 독립함과 아울러 박사과정이 신설되었으며, 1985년 3월에는 학부도 마침내 독립학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였다. 비로소 학과의 독립성이 제도적인 면에서 완비된 것이다.

<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 명단>

학번	성명	학번	성명
63	오병남	65	조중신, 권영필
68	윤재근, 최민	69	차명희
70	김기주, 김복영	71	이순자, 조선미
74	김문환, 서승원, 채희완, 박정기, 최명애	75	박범수
76	민주식, 민형원, 오종환, 정순복	77	황유경, 이창환, 김종대, 박낙규
79	신선주, 김종원, 안원현, 이영재	80	김광명, 이성훈, 강성원, 강보향
81	이춘길, 백미서	82	박동천, 염재철, 윤자정, 임일환, 인원근, 조영주, 홍승기, 박재석
83	김수기, 이영옥, 심광현, 주동률, 최연희, 이영철	84	이경희, 백윤수, 김수현, 조향순, 유명모, 조송식, 신길수
85	박상혁, 김학애, 목수현	86	김현희, 박일호, 이상우, 이진석, 김진엽, 진중권
87	이해완, 주성옥(법명: 명법)	88	신혜경, 정성철, 조진근
89	민현준, 이건수, 이수완, 황선재, 최미경	90	김한승, 장민한, 최석, 권대중, 박배형
91	양효실, 유지희, 서진희, 최경석	92	김한결, 조주연, 임혜은, 권혁성, 이윤영, 강미정, 손주현
93	서원주, 정혜린, 김남시, 선승혜	94	김율, 양혜윤, 이수진, 이종희, 최유준, 김상민, 안상원
95	김소영, 김정현, 이정환, 전예완, 최정은	96	심철민, 정수경
97	정혜윤, 한희원, 신문화, 조희원	98	윤혜경
99	이나라	00	김석주, 장은영, 신현주, 안소현, 양미경, 양민정
01	강선아, 김동국, 이은아, 정우진, 홍옥진	02	김인
03	계영경, 이슬기, 이용란, 정종은, 조선우	04	성기현, 안은희, 윤화숙, 이성민
07	최근홍, 송문영	08	김민정, 손정희, 허민희, 황대원, 황문영, 성지은
09	구교선, 김남이, 김선경, 윤주한	10	김전희, 박종주, 오윤정
11	엄정아, 이진실		

이 기간 동안 1981년 가을에는 임영방(林英芳) 교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가 미술이론 분야를 위해 미술대학에서 미학과로 소속을 옮겼으며, 1984년 11월에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문환(金文煥) 교수가 현대독일미학 분야를 위해 부임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박의현 교수와 김정록 교수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빈자리가 10여년이 지나 드디어 보전되었다.

4-2. 성장기 (1985 ~ 2010): 학문체계의 정비를 통한 학과의 독립성 제고와 교양교육의 확대

학과는 학사제도의 완비와 더불어 거침없이 힘찬 전진을 시작한다. 1985년 12월 백기수 교수가 아직 장년의 연세로 작고하신 것은 뜻밖의 큰 손실이었으나, 다행히 그 후임으로 박낙규(朴駱圭) 교수가 1987년 9월 동양미학을 위해 보강되었다.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외국 유학길에 올랐던 많은 인재들이 1980년

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에 걸쳐 속속 귀국하면서 미학과의 내실은 더욱 견고하게 다져진다. 미국에서 임일환, 오종환, 김혜련, 주동률, 김진엽, 독일에서 김광명, 민형원, 이창환, 박정기, 이춘길, 염재철, 일본에서 민주식, 그리스에서 서승원 등이 귀국하였으며, 또한 학과 자체에서도 황유경, 백운수, 윤자정, 박일호 네 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학에 대한 대학과 일반의 관심도 점차 고조되어 (이 무렵부터는 성형외과 서적들의 제목에도 Aesthetics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며 또한 실제로 미학을 공부하려는 성형외과의들도 나타난다) 훌륭한 인재들이 학부와 대학원에 줄지어 입학하고 학문연구열 역시 괄목할 정도로 고조되었다.

또한 이즈음부터 미학과의 교양과목의 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아래의 표는 2002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의 교양과목 수강생수를 정리한 것이다.

<미학과 교양과목 수강생수의 연도별, 학기별 추이>

연도	1학기 수강생수	2학기 수강생수	총계 (명)
2002	4,102	4,406	8,508
2003	4,480	3,681	8,161
2004	3,857	3,519	7,376
2005	3,265	2,667	5,932
2006	2,958	2,703	5,661
2007	2,993	2,616	5,609
2008	2,633	2,248	4,881
2009	2,433	2,590	5,023
2010	2,789	2,517	5,306
2011	2,592	2,232	4,824
2012	2,565	2,278	4,843
2013	2,355	2,297	4,652
2014	2,356	1,921	4,277
2015	2,254	1,949	4,203
2016	2,426		

원래 미학은 교양교육과 관계가 깊은 학문이다. 18세기 중반 독일에서 미학이 탄생할 즈음 유럽의 대학들은 대개 철학과, 신학과, 의학과, 법학과의 4개 학과로 구성되었는데,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일단 철학과를 거쳐야했다. 즉 당시 신학과, 의학과, 법학과는 장래의 직업을 위한 전문적, 실용적 교육에 치중했던 반면, 철학과는 오늘날 교양교육에 해당하는 일반교육을 책임졌으며 또한 그 일환으로서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성교육이상'(Bildungsideal)의 정립을 중요시했는데, 미학은 애초부터 그 불가결한 일부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바, 예컨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교과를 6개 분야로 분류하여 그중 한 분야를 미학과 관련된 분야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는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교양교육 체계도 대동소이하다.

오늘날 우리의 세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격변의 와중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점점 등한시하는 반면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가치관은 아직 굳건히 형성되지 않은 실정인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성교육이상'의 확립이 인문학 전반의 급선무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학과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선구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다른 어느 학과보다 일찍이 교양과목의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위의 표에서 보듯이 미학과 교양과목의 수강생수는 많을 경우 일 년에 8000명을 상회하고 또 적다해도 5000명가량은 되었으니, 이를 종합하면 서울대학의 입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대개 한 번은 미학과 과목을 이수한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이는 미학과의 역량이 대학의 구성원들, 특히 젊은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음을 가리키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학을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학문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학과 교양과목은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그 강좌수가 많을 때는 근 50개에 달하였는데, 당시 5명에 불과한 전임교수들이 이를 전담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따라서 학과는 부족한 교수진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독특한 강사운영 방안을 구축하여, 일단

한 강사에게 과목을 맡기면 좀처럼 책임자를 교체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를 통해 그가 장기적 안목에서 담당 과목을 개발, 육성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주었다.¹⁰⁾ 이와 같은 자구적 노력을 통해 교양과목의 발전은 한동안 순항하였지만, 학교 당국은 연전부터 교양과목의 학과 편중현상을 빌미로 그 인위적 축소를 요구해왔으며 또한 그 영향으로 현재 교양과목의 확장세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다소 주춤한 조정국면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로 생각된다. 소위 편중현상이라는 것이 설혹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각 학과들이 내실 있는 교양과목을 개발하고 또한 서로 간의 선의의 자유경쟁을 통해 개선되어야 마땅하며 또한 그 경우 비로소 교양교육 전반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편중현상을 단지 산술적인 면에서 지양하려는 학교 당국의 (특히 기초교육원의) 인위적 평준화정책은 비학문적 억지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자유와 개성을 지향하는 미학과는 외압으로 인한 이 어려움도 미구에 극복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학과의 역량은 한층 깊이와 폭을 더해갈 것이다.

1990년대 이래 학과는 국내외에서 실력을 쌓은 풍성한 인력을 바탕으로 서양미학의 비판적 수용과 동양 및 한국미학의 개척을 위한 노력을 병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분야들의 소통과 매개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한국적인 동시에 세계적인 미학 사상의 정립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의 궁극적 해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일이 아니며, 그런 한도에서 학과는 - 특히 후학들에게 당부하거니와 - 장차 위대한 미학 사상이 학과 자체에서 탄생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밖에도 학과가 그간 이룩한 발전은 타 학과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양과목의 성장, 우수한 학부생들의 학과 진입, 인문대학에서 가장 치열한 대학원 입시 경쟁,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외 및 국내 인재들의 활발한 활약상, 속속 개설되는 타 대학들의 미학 강좌, 정부 및 사회 기관의 요로에 진출한 졸업생들의 폭넓은 활동 등을 통해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992년 5월 임영방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이직하였으나, 대신 1993년 2학기에는 교수 정원이 신규로 한자리 늘어나 오종환 교수(현대영미미학)와 이창환 교수(근대독일미학)가, 2003년 2학기에는 다시 한자리 늘어나 이해완 교수(영미미학 및 매체이론)가 부임하였으며, 정년을 맞은 오병남 교수와 김문환 교수의 후임으로는 각각 김진엽 교수(미술이론, 2006년 1학기)와 신혜경 교수(사회미학, 2010년 1학기)가 부임하였고, 신규 외국인 교수로는 Peter W. Milne 교수(프랑스미학, 2011년 1학기)가, 또 조기 퇴임한 박낙규 교수의 후임으로는 이정환 교수(동양미학 및 한국미학, 2015년 2학기)가 부임하여 학과는 총 7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학과는 이러한 교수진에 기반을 두고 기본 프로그램인 미학이론(미학사, 영미미학, 독일미학, 프랑스미학, 동양 및 한국미학), 음악이론, 미술이론의 3분야 이외에도 앞으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갈 영상매체이론 분야와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학과는 타 대학 내지 타 학과와 협력하여 여러 협동과정(공연예술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협동과정, 인지과학 협동과정, 음악학 협동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많은 소장학자들이 각 대학을 위시한 사회의 요로에 진출하고 또 학과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학과의 장(場)은 급속한 팽창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문화 및 예술 분야가 중시됨에 따라 미학의 사회적 수요도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1990년 1월 학과의 주관으로 예술문화연구소가 인문대학 부설연구소로서 문을 열었다.¹¹⁾ 이 연구소는 한국미학회와 달리 이론적 주제 보다는 현실적 주제를 둘러싼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또한 기관지인 『예술문화연구』를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자체적으로 12집 발간하였다. 그러나 『예술문화연구』는 대학의 재정지원 중단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2003년부터 인문대학 부설 인문학연구소가 - 당시 학과 부설 연구소들은 대부분 인문학연구소의 산하에 편입되었다 - 주관하는

10) 최근 수년간 미학과 교양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강사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계영경, 권형성, 김세중, 김소영, 김영, 김울, 김재인, 김정진, 김정현, 김상민, 남상식, 민현준, 박정훈, 서원주, 서진희, 심철민, 신현주, 양금희, 양민정, 양효실, 염재철, 이상우, 이수완, 이슬기, 이종희, 이진석, 인원근, 임혜은, 전예완, 정성철, 정수경, 정혜윤, 조선우, 조주연, 조희원, 주명진, 최연희, 홍승기, 홍옥진.

11) 「예술문화연구소」는 1990년 1월 5일 미학과의 주도 하에서 비법정 연구소로서 설치되었으며, 문화 예술 학문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동을 통한 예술문화의 종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삼는다. 참여 단과대학(원) 및 학과로서는 인문대학,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가 있다. 예술문화연구소는 현재도 각종 국제 및 국내 심포지엄, 집중세미나, 집담회, 외국학자 초청강연회, 도서발간, 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인문논총』에 흡수, 통합되었다. 한편 연 1회 발간하던 한국미학회의 기관지 『미학』도 점증하는 연구 성과들을 충분히 신지 못하게 되자 1997년부터는 연 2회로 증간되었으며, 이마저도 부족하게 되자 2003년에는 3회를 발간하였고, 2004년부터는 연 4회씩 발간하고 있다. 학과는 또한 1994년부터 한국미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제미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부터 한국철학회의 산하 학회인 예술철학회와 공동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기간 동안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들을 초빙하여 약 4-5주에 걸치는 집중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의 후학들에게 외국의 최신 학술 동향을 전해주고 있다. 이제 미학과는 진정한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그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역경이 닥칠지라도 굳건히 견디어낼 수 있는 건강한 체질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이 모든 학과의 발전은 1970년 이래 학과와 학문의 내실을 위해 오직 한길만을 걸은 정암(鼎岩) 오병남(吳昞南) 교수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밝히며,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오병남 교수야말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좌고우면함이 없이 학과의 중흥을 최선두에서 이끈 분이니, 후학들은 그 뜻을 길이 사표로 삼고 또 기려야 할 것이다.

4-3. 변영기: 국내 미학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

학과의 변영기는 기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학과는 이후 한결같은 성과를 거두어왔으므로,¹²⁾ 여기서는 2016년 여름 미학과가 한국미학회 및 국제미학회와 협동으로 개최하는 세계미학자대회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학과의 성장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지난날을 반추할 때 세계미학자대회의 국내 개최는 불과 20년 전에도 상상 속의 일일 뿐이었으니, 금번의 개최는 금석지감을 절로 들게 한다. 이번 대회의 유치는 전통 문화의 탁월성과 IT 강국의 저력을 기반으로 이제 문화강국의 면모를 정립하고 세계 문화와 대등하게 교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학과는 규모와 내실 모두에서 이에 부응하는 충실한 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미술은 19세기 중반부터 자포니즘(Japonism)이란 이름으로 서양의 문화 및 예술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며, 또한 이로 인해 일본 문화의 세계화는 큰 도움을 받았다. 이에 비견하여 오늘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왕성한 한류(韓流)를 보며, 이는 비단 K-Pop이나 TV 드라마와 같은 대중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차원 높은 문학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경제발전이 일정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개성과 자유가 중시되고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물결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학이 보편화, 세계화를 지향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발견되고도 남는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50여 개국 700여명의 외국 학자들과 300여 명의 국내 학자들이 ‘미학과 대중문화’라는 대회 주제를 필두로 미학의 모든 영역에 걸쳐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바, 이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다면 국내의 연구수준과 국제적 교류역량이 획기적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소를 제공하고 대회를 주관하게 될 서울대학교의 국제적 홍보효과도 지대할 것이거니와, 특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이론가들과 관련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과 서울의 전통 및 현대 예술을 소개하는 효과도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번 대회 토픽의 종류와 발표 예정자 수는 다음과 같다.

12) <미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수 (2005 ~ 2014)>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계
학사	18	18	19	13	14	17	28	20	16	12	175
석사	7	2	2	4	1	4	6	5	3	6	40
박사	3	2	2	1	1	2	1	1	1	1	15

1	Issues of Art Theories in the Era of Mass Culture	52명
2	New Media, Design, and Aesthetics	30명
3	The Aesthetics of Body and Sports	8명
4	Reflexions on the History of Aesthetics	34명
5	Values of Art: Cognitive, Moral, and Political	40명
6	Scientific Perspectives on Aesthetics	14명
7	Imagination and Emotion	13명
8	Aesthetics of Environment and Ecology	32명
9	Aesthetics and Theory of Individual Artistic Genres	47명
10	Aesthetics and Art Theories in Asian Traditions	44명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역량을 지닌 학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학부에 미학과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간 미학과의 성과가 어떠한지를 대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 학과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대학자를 학과의 자력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혹 이 글을 읽는 젊은 학도가 있다면 장차 미학에 입학해서 그 보람찬 일을 맡아주길 권하며, 또한 그리하여 차후 학과사를 쓸 기회에는 더욱 찬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5) 부록

미학과의 발전에는 8, 90년대에 출강하셨던 여러 강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컸다. 미학과에서 학위를 받은 백윤수 선생과 조송식 선생, 북경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상우 선생이 동양미학을 강의하였고, 멀리 강릉에서 매주 출강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황유경 선생, 브라운 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후 외대의 전임교수로 있으면서 미학과에 출강하여 미국의 최신 논의를 접하게 해 주었던 임일환 선생, 그리고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귀국한 김진엽 선생, 주동률 선생 등이 영미미학을 가르쳤다. 독일미학의 경우도 오랜 시간 독일미학과 예술심리학을 담당했던 김광명 선생, 90년대 독일에서 귀국한 후 출강하여 독일 현대미학을 가르쳤던 민형원 선생, 하이데거와 독일미학을 가르쳤던 염재철 선생 등의 노고가 있었다.

음악 및 미술이론 분야에도 많은 선생님들의 기여가 있었다. 음악미학을 가르쳤던 양금희 선생과 90년대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음악미학을 가르쳤던 박을미 선생, 미술이론 분야를 담당했던 마순자 선생, 최연희 선생, 무용미학을 가르쳤던 채희완 선생, 영상미학을 담당했던 고 권병순 선생의 노력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이론을 가르치는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특히 90년대는 미학과의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여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시기이다. 미학입문에 해당하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예술과 인간, 예술과 역사, 예술과 사상, 예술과 윤리, 예술과 과학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하여 대중예술의 이해, 시각매체예술론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했다. 특히 대중예술의 이해를 담당했던 박성봉 선생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대중예술의 문제를 통해 미학을 접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박은진 선생은 예술과 과학이란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그밖에도 윤자정, 박일호, 신혜경 선생 등이 미학과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여 내실을 기하는 데 기여하였다.

작성자: 이창환 (미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6. 5. 18.